"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제882호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10월 5주차 동향 (10.26.~11.1.)

민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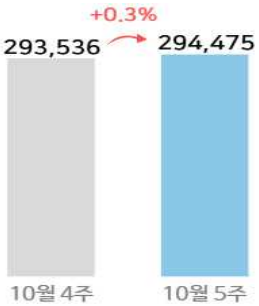
순위	민원 키워드	주요 내용	건수
1	●●지구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2,122
2	불법광고물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158
3	○○○ 총재	1심 판결 관련 이의제기	1,028
4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요청	961
5	@@@역 변전소	변전소 설치 반대	862
6	불법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인터넷 광고 등 신고	813
7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신고	594
8	위례선 트램	조속 개통 촉구	556
9	★★소각장	폐기물소각시설 건립 반대	399
10	제2경인선	조속 추진 요구	275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 10월 4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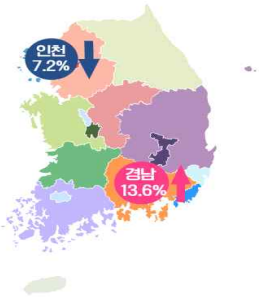
【 민원 추이 】

10월 5주차 민원은 **294,475건**(일평균 42,068건)으로 지난주(293,536건) 대비 **0.3% 증가**



【 지역별 증감 현황 】

지역별로는 **경남**(13.6%), 부산(11.8%) 등 **증가**, **인천**(7.2%), 강원(5.1%) 등 **감소**



주요 민원

□ 국가기술자격 전기기사 실기시험 출제 문항 이의 제기[150건]

○ 출제 문항의 정답 논란 및 채점기준 비공개에 따른 전원 정답 처리를 요청하는 민원 제기

- **검토요청** 2026년 제3회 전기기사 실기시험 1번 문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규정 적용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과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한 계산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험생들은 문제의 표현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여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험생의 지식이나 준비 정도와 별개로 문제의 해석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시험 문항은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과 명확한 기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문제 자체의 표현과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수험생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문항의 모호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10.26.)
- 1번 문항은 어떠한 풀이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는 답을 도출할 수 없는 명백한 출제 오류입니다. KEC 요건에 따라 풀게 될 수도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였고, KEC 외 방식으로 풀면 지문의 'KEC에 기준에 따른다'라는 조건에 따라 성립이 될 수 없는 정답이 됩니다. 두 풀이 모두 문제의 조건과 양립할 수 없어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번 문항을 출제 오류로 판정하여 전원 정답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10.27.)
- 1번 문항은 문제의 조건과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수험생들이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문항은 KEC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한편, 문제에서 제시한 전압과 단락전류 등의 수치를 활용하여 계산하는 문제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문제의 표현과 조건만으로 명확한 풀이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험생들은 각자의 합리적인 해석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풀이 방식이나 답안만을 기준으로 채점할 경우, 문제의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한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이 수험생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당 문항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10.27.)

□ 위례선 트램 개통 지연 관련 민원[556건]

○ 트램 운행 구간*의 법적 지위를 놓고 관계기관 간 해석 차이로 위례선 트램 개통이 지연됨에 따라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는 민원

* 전체 노선 5.4km 중 약 1.2km는 보행자 혼용구간이며, 일반도로 교차로 13곳에서는 자동차·보행자와 운행 공간을 공유

- 위례선 트램은 ◇◇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핵심 교통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이견과 안전 관련 행정절차 지연으로 당초 예정된 2026년 12월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시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을 2027년 3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확정 개통 일정은 2027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 이후에도 교통안전심의와 안전시설 보완, 철도종합시험운행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개통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관계기관의 공동 합의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목표 일정만으로는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조속한 개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10.31.)
- 더 이상 불확실한 목표 일정과 막연한 추진 약속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절차는 철저히 이행하되,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실행계획과 일정 관리를 통해 위례선 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민원요구에 대하여 주민 소통을 즉시 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11.1.)

□ ◈◈ ★★시 ▲▲지구 ♧♧♧공원 내 전신주 이설·지중화 요청[166건]

○ 공원 조성에 따른 경관 개선을 위해 공원 내 전신주 이설 또는 지중화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민원

- 공원 한복판에 고압 전신주가 서 있는 상태에서 공원 조성을 강행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공원 개장 전까지 해당 전신주 정비를 완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요구합니다. 조속한 이설·지중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10.31.)
- ▲▲지구 내 ♧♧♧공원 한가운데에 기존 전신주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조성 취지인 '지중화 및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와 맞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관 저해, 도시환경 악화, 안전사고 위험 등의 부정적 비용과 고통은 주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10.28.)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국가기술자격 전기기사 실기시험 출제 문항 이의 제기	1AA-2610-1070850	한국산업인력공단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